

날씨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①

글 장영주

이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 단체의 운영 실태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니 영 글을 쓸 의욕이 일지 않아서 쓸까 말까를 망설이며 쓰다 말다를 거듭하다가 사흘이면 쓰고도 남을 글인데 그만 석 달이 더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 쓰고 나서도 발표할까 말까를 주저하느라 한 달을 보냈습니다. 쓰다 보니 언제나처럼 또 글이 길어지고 말았군요.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글이 좀 길다 싶으면 지레 겁을 먹고 읽기를 꺼린다기에 하찮은 글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들이 함께 읽었으면 해서 한 쪽지의 글을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 신기로 했습니다. 독서는 습관입니다. 토막 글이라도 자주 읽어야 독서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책 속에 미래가 있다. 읽어야 열린다”(뉴욕타임스 회장)고 하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독서를 게을리한 단체는 무기력한 무지의 집단으로 전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서와 경험이 결합하여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왜 전쟁이나 요트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는가?

인간은 누구나 날씨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날씨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폭우와 폭설, 혹한과 혹서 그리고 태풍과 해일은 사람들에게 막심한 재해를 안겨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날씨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을 지낸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장군은 전략을 세우고, 유능한 장군은 병참을 공부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은 날씨를 아는 장군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침공했다가 동장군(혹한) 앞에 무릎을 꿇고 패퇴한 것은 날씨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증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1592년 1월 1일(48세)부터 시작하여 1598년 11월 17일(54세)까지 1500일을 기록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여러 이유로

일기를 쓸 수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일기는 날마다 날짜 다음에 날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간단히 그리고 날씨가 궂은 날은 그것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기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날도 날짜와 날씨는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군이 그만큼 날씨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잣대로 보았을 때도 이순신 장군은 승리하는 장군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날씨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진대 하물며 바다에서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속도를 겨루는 요트경기에서라 말해 무삼하리오.

뉴질랜드의 해미시 월콕스(<470의 정상이 보인다>의 저자)는 470세계선수권에서 챔피언이 된 뒤에 은퇴하여 국가후보선수 코치로 있으면서 1년 동안 기상에 관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내가 만일 선수 생활을 할 적에 지금과 같은 기상에 관한 지식을 가졌더라면 아마도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휩쓸었을 것이다.”

날씨의 추이를 예측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다

돛달리기(sailing)의 여러 매력 가운데 하나는 어떤 상황도 결단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요 변화는 곧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에서는 주기적으로 흐름(조류)이 바뀌고 물결(파도)이 요동치는가 하면 시시각각으로 바람이 도섭니다. 따라서 돛달리기는 늘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리는 변화의 연속이고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행동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현상을 겨레말로는 날씨라 하고 한자말로는 천기(天氣), 일기(日氣) 또는 기상(氣象)이라고 합니다. 날씨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돛달리기꾼들(sailors)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과 물결 그리고 흐름입니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 현상으로 기온과 기압에 따라 세기를 달리하고 또 도서기를 되풀이합니다. 물결 역시 바람의 영향으로 일어나지만 더러는 해저 지진이 원인인 때도 있습니다. 흐름은 천체의 인력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해류의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돛달리기꾼들이 수집된 여러 날씨 정보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날씨의

추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고 또 경기에서는 상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에서 승리의 요체는 함께 겨루는 선수들 사이에서 누가 더 정확도가 높은 날씨의 추이를 예측하여 그에 합당한 전략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느냐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날씨의 예측이 빗나가거나 날씨가 바뀌면 그 변화에 맞추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듯 요트경기는 유동성의 연속이요 이는 곧 변화이며 변화는 날씨의 속성이기도 하답니다.

세계적 톱 세일러들이 경기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구(氣球)를 띄워 상층 기압을 재는 것은 남들보다 더 정확한 날씨의 추이를 예측하여 경기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상층 기압을 재서 안들 그것을 이용하여 날씨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날씨는 자연 현상의 하나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개인이 해낸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날씨의 추이를 대강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의 능력은 지능인데 인간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능은 경험한 기억들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많은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날씨의 예측 능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덧붙임

지능을 높이려면

인간의 예지 능력은 지능에 있고 지능은 “경험한 기억들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예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건데,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선수는 각기 자기 처지에서 훈련일지를 쓰고 돛배꾼은 돛달리기하는 날만이라도 돛달리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

기>처럼 그날의 날씨를 면밀히 관찰하여 써야 합니다. 일기에 날씨를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도 날씨를 관찰하는 자세가 평소와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억은 뇌에 각인될 것입니다.